

## 5/31(화) 옵기 38-42장 상처 입은 치유자

드디어 <여호와>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(38:1).

그동안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<전능자>께서(엘 사다이, 3-37장)

친밀하고 인격적인 <여호와> 하나님으로 찾아 오셨습니다(1-2, 38-42장).

하나님은 그동안 육이 물었던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십니다.

육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하며 지도하십니다(Spiritual Direction, 38:3,40:7).

육은 하나님의 물음 안에 펼쳐진 창조 세계와 질서들을 보게 됩니다.

좁은 자기 세계에서 나와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갑니다(36:16).

고난의 구덩이에서 나와 빛 가운데 세상을 보게 됩니다.

천하의 모든 것, 심지어 혼돈과 두려움의 존재들도 주께 속했으며

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다스림대로 존재합니다(40:15,41:1,11).

육은 벼름받지 않았고 창조 세계와 질서 속에 속해 있습니다.

하나님의 돌보심, 창조주의 손길이 육을 붙들고 계십니다.

인간은 웅장한 괴조세계의 작은 일원일 뿐,

자연만물,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.

때문에 단정하거나 판결, 변호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.

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실 수 있습니다(40:8-9).

세 친구는 삼단논법처럼 일관되고 논리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.

그러나 육은 하나님의 <거친 질서>를 마주 했습니다. 프랜스 영

하나님의 생각과 깊은 유한한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(사55:9).

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,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

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입니다. 블레즈 파스칼

<어둔 밤>을 통해 육은 <나의 하나님>을 만났습니다(40:5).

육은 이제 친구들을 위한 중재자, 중보자,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(42:7-9).

깊고 넓은 세계로 나왔으나 육은 <상처 입은 치유자>입니다.

아름다운 자녀들 속에 때로 상흔을 더듬는 <아버지>입니다(42:13-15, 1:18-19 참고).

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?

❶ 좁은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로 나아갑니까?

❷ 고난의 구덩이에서 나와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봅니까?